



水邊情談

여기는 러시아 극동의 태평양 함대가 있는 연해주주의 수도 블라디보스토크이다. 이곳에서 나는 경기대학교의 학술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극동국립대학교의 한국학대학에서 한국철학사와 한국어 회화 등 모두 4강좌를 한 학기 예정으로 강의하고 있다.

역시 듣던대로 생필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시장에 나가면 생활필수품은 그런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칠판 지우개나 옷처럼 생존이 직접 도움이 안되는 물건은 구하기 어렵다. 그래

등을 보면서 “아, 내가 러시아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곳에는 슬픈 사연을 가진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 약 20~30%는 고려인이고, 이들은 벌써 4세대의 아이들이다. 이들은 생김것은 우리와 같으면서도, 춘자나 길호라는 본래의 이름을 놔두고 재나 혹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러시아 이름에 더 익숙한 반쪽이들이 되고 말았다.

우리말을 거의 잊어버린 이들은 88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고려인이라는 사실조차 숨기려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력 덕분에 이들은 이제야 자신이 고려인임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경제력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음식물이 순전히 국산투성이라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러시아 아이스크림 대신 한국의 아이스크림을 찾고, 러시아 차 대신 한국의 커피를 마시고, 간장, 토마토 케찹, 식용유 등 모두 우리 제품들이다.(그러나 중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은 거의 일본의 것이다.)

우리의 경제력이 그들의 마음에 다소의 위안을 주고 있고, 한국은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 하다. 러시아 정부의 경제력 빈곤 때문이다.

## 블라디보스토크의 고려인들

서 이곳 사람들은 한 계절에 한 벌의 옷만 갖고 있을 정도다.

시골 대합실 같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부터 느꼈지만, 이곳은 마치 60년대 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한다.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전체적인 도시의 분위기가 전혀 낯설지 않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든가, 화장실에 문이 없는 모습, 거리에 뜨란바이(전차)가 다니는 모습, 중고 자동차의 심한 매연 등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모습들이다.

다만 모두가 예뻐보이는 러시아 여학생들이 나에게 “즈드라이스트 부이체”하면서 파아란 눈으로 방긋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 이 운 형

(경기대학교수, 철학)

실제로 이곳 극동대 교수들의 봉급은 약 70~300불(시간 강사는 약 70불, 부교수는 약 200불, 학장은 약 300불)를 받는데, 그것도 정부에 돈이 없어 한달치는 밀려 있다고 한다. 나에게도 월급을 주는데 약 150불 정도다. 그러나 세금과 연금을 떼니 120불 정도된다. 이만한 돈으로 교수들은 자가용까지 굴리고 있으니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온 집안식구가 생활 전선에서 뛰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얼마전에는 이곳 대학 기숙사 앞바다에 나가 얼어붙은 바다위를 걸었다. 마치 예수가 된 기분으로 모래사장으로부터 약 1킬로미터 바다쪽으로 걸었다. 이곳에서는 주로 실업자들이 소일삼아 얼은 바다 위에서 꿈치보다 작은 물고기를 낚고 있었다.(여기 사람들은 오이냄새가 난다고 '오이고기'라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은어'라고 부른다. 우리 돈 천원으로 20여마리를 살 수 있다.) 그 중 어느 낚시꾼이 빌려준 낚시대로 낚시를 해보았으나, 나는 한 마리도 낚질 못했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묻는다. '유스나 까레이'라고 하자 엄지 손가락을 내밀며 '하라쇼(좋다)'라고 한다.

나중에 알았지만, 동양인에게 어디서 왔는가를 물어봐서, 일본인이면 아주 부러운 눈초리를 하고, 한국인이면 조금 부러운 눈초리를 하고, 중국인이라고 하면 침을 뱉고, 북한인이라고 하면 도망을 간다. 일본과 우리나라 야 경제력 때문이겠지만, 중국인들과는 왜 그렇게 사이가 갈라졌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단지 북한인을 보면 도망을 간다는 우스개 소리는 '북한 사람들은 집도 절도 없어 보이는게 없기 때문'이라고 러시아인들이 농담을 한다.

얼마전에 고려인 교수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아르좁이라는 작은 도시인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약 1시간 걸리는 곳에 있다. 아르좁에도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고, 이들은 두부와 떡도 만들어 먹고 있으며, 산에서 고사리도 먹는다고 한다. 그 분은 73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

는데, 그 어머니는 나에게 "멀리서 오셨소이"하며 반가이 맞아주시더니, 당신의 아버지 얘기에서부터 흥범도 장군의 무용담까지 한참을 이야기 하시다가 "일본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양이가.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양이가."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신다.

이와 같이 블라디보스토크의 하늘 아래에는 러시아인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약 200명이 있다고 한다), 북한사람, 일본사람, 중국사람 등등과 함께 '고려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약 5천명 살고있다. 나는 러시아 여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은 자신을 러시아인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인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물론 한국인"이라고 당당히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들의 여권에는 '한국인'이라는 표지가 찍혀 있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자꾸만 나는 과거 나찌하의 유태인이 연상되곤 하는 착잡함을 지우려고 애를 썼다. ☞